

##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

최수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기존에 고용 성과의 측면에서만 평가하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해 개인의 행복 증진과 같은 효용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이 고용 여부, 고용 기간, 임금 등과 같은 고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치중하고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가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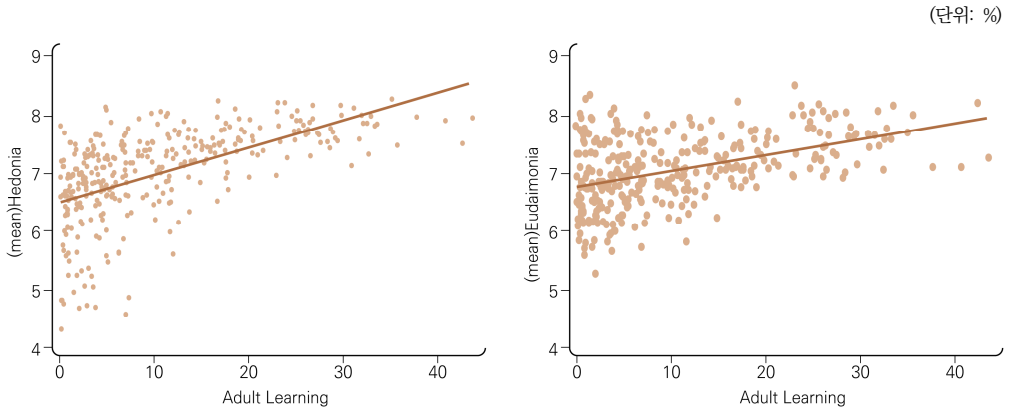
[그림 1]은 유럽 국가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유럽 국가의 국가별, 시기별, 성별, 연령별 코호트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x$ 축이며 해당 코호트의 평균 행복 수준이  $y$ 축으로, 좌측의 그래프는 헤도니아적 행복의 개념과 가까운 삶의 만족도<sup>1)</sup>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우측의 그래프는 유다이모니아적 행복 개념과 가까운 삶의 결정권<sup>2)</sup> 지표를 활용하였다. [그림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는 두 가지 개념에서의 행복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이라는 질문에 10점 척도로 응답함.

2) '삶에 자유로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점 척도로 응답함.

그림 1.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와 행복의 관계



자료: World Values Survey Wave 1~5, Eurostat 원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II 분석 자료 및 모형

### 1. 분석 자료

국내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개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실태조사 자료는 매년 25세에서 7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참여 여부와 그 종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설문조사 자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a: 10-20)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실태와 성과를 진단하는 데 최적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2020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가장 최신의 자료 대신 2020년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2020년까지 유지되어 온 조사 대상 기간 기준(전년도 7월 ~ 조사 연도 6월까지의 지난 1년)이 2021년 변경되어(전년도 1월에서 전년도 12월까지의 1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a: 11) 최근 2개 연도의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 줄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참여율 저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했을 때의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0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표 1>은 2020년 실태조사 자료의 조사 표본의 구성을 보여 준다.

표 1.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표본 구성

(단위: 명, %)

구분	조사 표본		
	사례 수	비율	
성	남성	4,855	49.7
	여성	4,921	50.3
연령	만 25~34세	1,836	18.8
	만 35~44세	1,936	19.8
	만 45~54세	2,143	21.9
	만 55~64세	2,142	21.9
	만 65~79세	1,719	17.6
학력	중졸 이하	1,482	15.2
	고졸	3,890	39.8
	대졸 이상	4,404	45.0
경제활동상태	취업	6,964	71.3
	실업	491	5.0
	비경제활동	2,321	23.7
월 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425	4.4
	150~300만 원 미만	1,380	14.1
	300~500만 원 미만	3,626	37.1
	500만 원 이상	4,344	44.4
	모름/무응답	1	0.0
지역	서울 및 광역시	4,298	43.9
	중소도시	3,751	38.4
	농어촌	1,727	17.7
취약계층 <sup>1)</sup>	취약	325	3.3
	비취약	9,451	96.7
<b>전체</b>		<b>9,776</b>	<b>100.0</b>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을 총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p.16.

## 2. 분석 모형

본고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은 평생학습의 하위 개념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 대학 교육과 같은 형식교육을 제외한 25세 이상 성인의 역량개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비형식 교육’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국내 분석에서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유럽 국가 분석에서 사용한 일반적 OLS 회귀분석이 아닌 PSM을 활용한 이유는 회귀분석의 경우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로 행복 지수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이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많이 참여하여 계숫값이 유의하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적절한 도구변수를 활용하거나 시차를 적용하여 분석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구분하여 알 수 없다. 실태조사 자료로는 도구변수 분석이나 시차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귀식 분석방식을 제외하였다.

PSM은 처치변수(여기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관측치가 처치를 받을 확률(평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확률)을 계산하고, 이 점수가 유사한 관측치들을 매칭하여 이들의 결과값(행복 수준)을 비교한다. PSM의 중대한 가정들<sup>3)</sup>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관측치들이 잘 매칭<sup>4)</sup>되어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간의 성향점수 차이가 사라진다면, 이제 우리는 해당 처치변수가 완전 무작위로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여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무작위로 처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선택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처치효과의 인과적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PSM을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값은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와 처치그룹 내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reated, ATT) 두 가지이다. 각각의 효과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 (3)과 같다.

$$ATE = E[Y(1) - Y(0)] \quad (2)$$

$$ATT = E[Y(1) | T=1] - E[Y(0) | T=1] \quad (3)$$

ATE는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간의 평균적 결과 차이를 나타내며 ATT는 처치그룹에 속한 관측치가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평균 처치효과이다. 즉, ATT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을 가정하여 추정한 값으로 PSM 분석에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값

3) Unconfoundedness Assumption:  $Y(0), Y(1) \perp T \mid X$  where  $T = (0,1)$  X라는 관측변수들로 추정된 처치 여부는 그 결과값과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가정. 여기서 X는 처치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함.

Overlap Assumption:  $0 < P(T=1 \mid X) < 1$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상관없이 모든 관측치들은 양(+의) 성향점수를 가짐.

4) 매칭 방법은 nearest-neighbor를 사용함.

이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매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ATE는 ATT와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관측이 어려운 통제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치 여부의 선택편의 일부가 ATE에 반영된다. 반면 ATT의 경우 처치 여부 자체의 선택편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다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는 <표 2>와 같다. 실태조사 자료에 유다이모니아 설문문이 없기 때문에 결과변수는 헤도니아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만을 사용한다. 처치변수는 평생직업능력 개발 참여 여부인데, 평생학습 가운데 비형식 교육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확률을 측정하는 매칭변수로는 총 7가지 변수를 활용하며, 각각의 내용은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 2. 국내 분석 변수 설명**

구분	지표	내용
결과	삶의 만족도 (Hedo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li> <li>11점 척도 응답</li> </ul>
처치변수	평생직업능력 개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1년간(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0: 없음, 1: 있음)</li> <li>비형식 교육 항목: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직장 내 직무연수 프로그램, 원격/사이버 강좌,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기타</li> </ul>
매칭변수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그룹	1: 25~34세, 2: 35~44세, 3: 45~54세, 4: 55~64세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이상
	경제활동상태	1: 비경제활동, 2: 실업, 3: 취업
	월 가구소득	1: 150만 원 미만, 2: 150~300만 원 미만, 3: 300~500만 원 미만, 4: 500만 원 이상
	지역	1: 서울 및 광역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부양가족 유무	1: 없음, 2: 있음

### III 기초통계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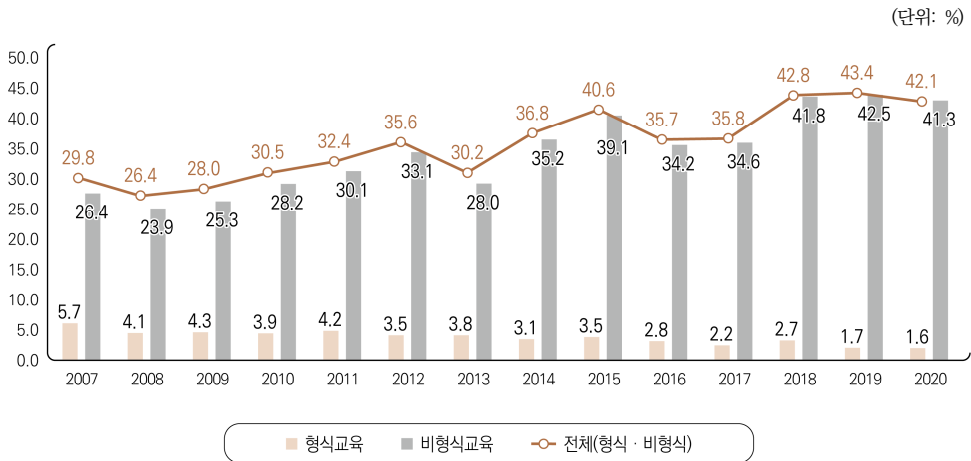
#### 1. 기초통계

[그림 2]는 2007년 조사 이래 2020년까지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여 주고 있다. 조사 시작 시점에는 전체(형식·비형식)의 참여 비율이 대략 20% 후반에서, 2010년이 되면서 30%를

넘고, 2018년부터는 40% 초반대의 참여율을 보인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이 형식과 비형식으로 나뉜다고 해도 대부분의 평생학습은 비형식 형태이며, 형식교육은 시간에 따라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19의 발생이 평생학습 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의 조사 기준 시점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인 것을 고려하면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의 효과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기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약 10%p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로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a: 26).

그림 2.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주: 해당 참여율은 각 연도의 실태조사 결과에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 특성에 맞게 계산한 값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p.32.

<표 3>은 집단별 평생직업능력개발(비형식 교육) 참여율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성별 간에는 참여율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은 비슷하다. 성별 참여율에 있어 국내와 유럽 국가 데이터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유럽 자료의 경우 과거(1990년대)의 시점

까지 포함한 반면, 국내 자료는 2020년 단일 연도의 참여율만을 기준으로 하여 나타난 차이 일 수 있다.

**표 3. 인적 특성별 우리나라 평생직업능력개발(비형식 교육) 참여율**

(단위: %, 명)

구분	참여율	표본규모
전체	39.5	9,776
성별		
남성	38.7	4,855
여성	40.1	4,921
연령별		
25~34세	48.2	1,836
35~44세	46.6	1,936
45~54세	39.1	2,143
55~64세	34.2	2,142
지역별		
서울 및 광역시	40.3	4,298
중소도시	39.4	3,751
농어촌	36.8	1,727
가구소득 수준별		
150만 원 미만	26.1	425
150~300만 원 미만	30.0	1,380
300~500만 원 미만	38.4	3,626
500만 원 이상	44.8	4,34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와 같이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나, 서울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참여율 차이는 1%p로 차이가 크지 않다. 농어촌에서는 36.8%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미약한 인프라 문제와 고령화된 지역의 인구적 특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육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이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특성 차이를 보여 준다. 요약하면 평

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며, 나이는 더 적고 학력 수준은 더 높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미 취직한 상태일 확률이 높고 월 가구 소득이 더 높으며 대도시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즉, 평생학습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별과 부양가족 유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구·경제학적 특징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우리나라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특성

특성	비참여자		참여자		t-test 결과 (비참여자-참여자)
	표본규모	평균	표본규모	평균	
삶의 만족도	5,941	7.88	3,824	8.43	-0.55***
성별	5,949	1.50	3,827	1.51	-0.01
연령그룹	4,736	2.67	3,321	2.43	0.241***
학력	5,949	2.19	3,827	2.47	-0.28***
경제활동상태	5,949	2.40	3,827	2.59	-0.18***
월 가구소득	5,949	3.14	3,827	3.34	-0.20***
지역	5,949	1.76	3,827	1.71	0.05***
부양가족 유무	5,949	1.65	3,827	1.66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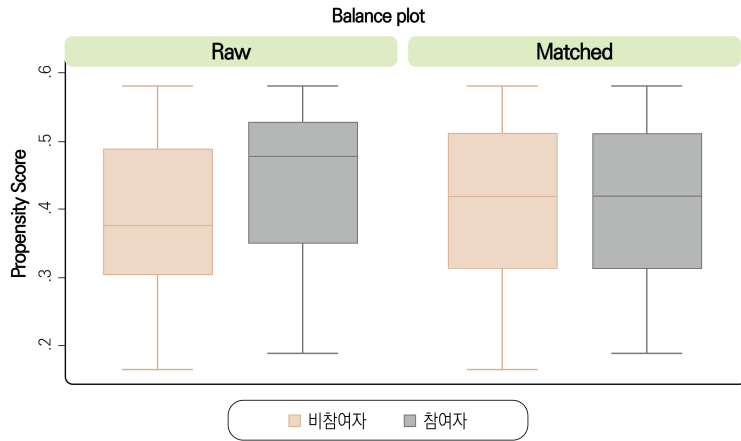
〈표 4〉의 변수들은 모두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뿐만 아니라 행복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이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 채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행복을 비교하면 과대 측정된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매칭변수들을 활용하여 개별 관측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률을 계산하고, 이 값이 서로 유사한 관측치의 행복 수준을 서로 비교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효과를 추정한다.

## 2.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PSM을 활용한 매칭 결과를 먼저 제시한다. [그림 3]은 매칭 전후의 평생학습 비참여 그룹과 참여 그룹 간의 성향점수 분포 차이를 보여 준다. 매칭 이전에는 참여자의 참여 확률 성향은 비참여자에 비해 확실히 높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매칭 이후에는 참여와 비참여 그룹의 성향점수 분포가 서로 거의 동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PSM 매칭 전후 성향점수 분포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5〉는 매칭 전후 개별변수의 편이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성별과 부양가족 여부의 경우 기초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매칭 이전에도 편이가 없었으나 매칭 이후에는 더욱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편이가 평균적으로 9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칭을 통해 기존에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띠던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이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결과는 분석을 위한 매칭이 잘 이루어져 두 집단 간 편이가 사라진 것을 보여 주며, 이는 PSM 추정 결과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의 선택편의를 관측 가능한 변수에 있어 많은 부분 통제하였음을 보여 준다.

표 5. 인적 특성별 PSM 매칭 전후 편이 비교

변수	매칭 전	평균		%편의	%감소  편의	t-test	
	매칭 후	처치 그룹	통제 그룹			t값	p> t
성별	매칭 전	1.497	1.504	-1.6	84.5	-0.690	0.493
	매칭 후	1.497	1.495	0.2		0.100	0.922
연령	매칭 전	2.428	2.669	-21.8	95.1	-9.630	0.000
	매칭 후	2.428	2.440	-1.1		-0.430	0.664
학력	매칭 전	2.612	2.388	38.2	98.9	16.760	0.000
	매칭 후	2.612	2.609	0.4		0.180	0.861
경제활동 상태	매칭 전	2.668	2.53	17.2	97.2	7.500	0.000
	매칭 후	2.668	2.672	-0.5		-0.210	0.835
가구소득 수준	매칭 전	3.456	3.297	22.2	96.2	9.700	0.000
	매칭 후	3.456	3.462	-0.8		-0.360	0.716
지역	매칭 전	1.689	1.741	-7.3	94.9	-3.210	0.001
	매칭 후	1.689	1.686	0.4		0.160	0.876
부양가족 여부	매칭 전	1.681	1.678	0.5	5.6	0.240	0.809
	매칭 후	1.681	1.683	-0.5		-0.210	0.83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6〉은 최종 분석 결과값인 ATE와 ATT값을 보여 준다. 두 값 모두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진다. 먼저 ATE값부터 해석하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무작위로 시행하는 경우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0.408점 정도 더 높다. 삶의 만족도가 총 11점 스케일인 것을 보았을 때 작은 효과로 보일 수 있지만, 응답값이 7~9점에 75%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국내 자료 PSM 분석 결과

구분	참여자와 비참여자 삶의 만족도 차이	강건 표준오차	표본규모
ATE	0.408***	0.031	8,047
ATT	0.388***	0.031	8,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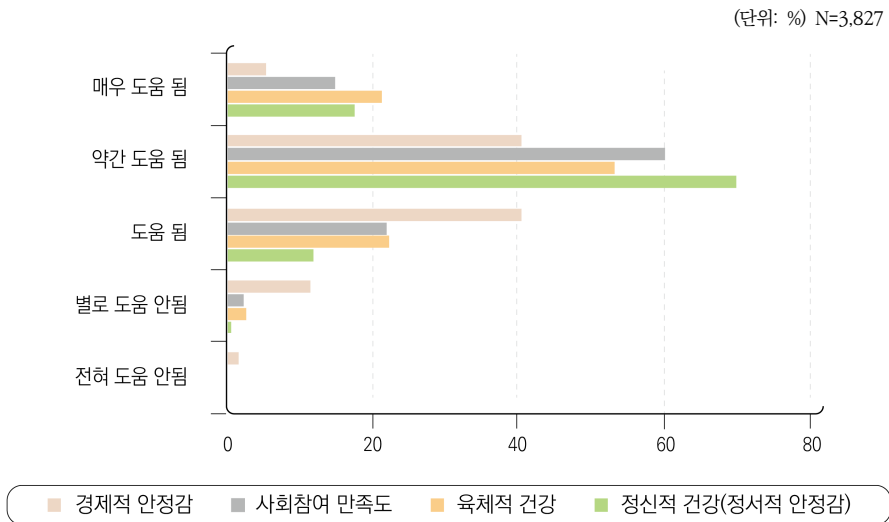
주: \*p < 0.1, \*\*p < 0.05, \*\*\*p < 0.0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TT 결과를 해석하면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행복도가 0.388점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작위로 시행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평균적으로 0.388점 정도 더 낮았을 삶의 만족도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를 통해 상승한 것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실태조사 설문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의 참여가 각각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참여자 가운데 과반수는 모든 영역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평생학습이 ‘약간’ 혹은 ‘매우 도움 됨’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정신적 건강 증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8%가 ‘약간·매우 도움 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 참여 만족도’ 항목의 긍정적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사회 안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중심이 되는 유다이모니아 행복 증진에도 평생학습이 유의미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의 ‘삶의 질 향상’ 도움 정도



주: “평생학습 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각 항목별 응답 결과.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7>은 PSM을 하위 그룹별로 시행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 준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어떤 인구·경제학적 특성 그룹에서도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다는 점이다. 그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표본규모가 매우 작은 150만 원 미만의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은 행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는 단순히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정 집단에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전체 평균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특성별 하위 그룹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진정한 행복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하위 집단별 PSM 분석 결과

구분	ATT값	강건 표준오차	표본규모
성별			
남성	0.294***	0.043	4,011
여성	0.494***	0.044	4,036
연령			
25~34세	0.268***	0.061	1,833
35~44세	0.333***	0.059	1,934
45~54세	0.444***	0.062	2,140
55~64세	0.507***	0.063	2,140
지역			
서울 및 광역시	0.394***	0.044	3,566
중소도시	0.425***	0.048	3,168
농어촌	0.288***	0.092	1,313
가구소득 수준			
150만 원 미만	0.428	0.593	130
150~300만 원 미만	0.560***	0.131	805
300~500만 원 미만	0.449***	0.05	3,126
500만 원 이상	0.333***	0.04	3,986

주: \*p < 0.1, \*\*p < 0.05, \*\*\*p < 0.0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하위 그룹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한계효과를 하나씩 비교한 결과, 먼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큰 행복 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가장 어린 집단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행복 증진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서울 및 광역시, 농어촌 순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면 150만 원 미만인 그룹에서는 효과가 없고, 그 외의 그룹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 원 미만 그룹의 경우 표본 규모가 130명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매우 작아 높은 표준오차와 함께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행복 수준이 낮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행복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행복도가 높은 그룹의 행복 수준을 더 올려 전체 국민의 평균적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을 가진 집단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행복 균형 달성과 질적 상승에 평생직업능력개발이 매우 좋은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유럽 국내 자료 분석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개인의 행복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위 그룹별로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인구·경제학적 특성 그룹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삶의 가치와 만족도의 상승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이는 특정 집단에서만 관측되는 관계가 아닌, 여러 하위 집단에서도 관측되는 일반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하위 집단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한계 효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직업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행복(유다이모니아, 헤도니아)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이 단순히 고용인을 위한 피고용자의 '부가적 학습'의 의미가 아닌,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노동자에게 있어 필수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집단의 성격에 따라 그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의 정도뿐만 아니라 노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층의 경우 다양한 교육의 기회 및 정보에 노출되고 참여율이 높은 반면,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교육정보 및 실질적 참여의 노출 기회가 적어 연령대가 높은 그룹에서의 한계효용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소득별, 성별, 연령별 평생직업능력 교육에 대한 수요의 정도와 필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World Values Survey(2014. 4. 29.). World Values Survey Wave 2(1990-1994).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2.jsp> (검색일자 2022. 12. 28.)

World Values Survey(2014. 4. 29.). World Values Survey Wave 3(1995-1998).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3.jsp> (검색일자 2022. 12. 28.)

World Values Survey(2018. 9. 12.). World Values Survey Wave 4(1999-2004).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4.jsp> (검색일자 2022. 12. 28.)

World Values Survey(2018. 9. 12.). World Values Survey Wave 5(2005-2009).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5.jsp> (검색일자 2022. 12. 28.)

World Values Survey(2020. 2. 8.). World Values Survey Wave 1(1981-1984).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1.jsp> (검색일자 2022. 12. 28.)